

[목회자 모임-요한복음]
8. 제일 중요한 것

2019. 6. 28.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

지난번 요한복음 1장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연속해서 말씀하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답을 쓸 때는 늘 틀린다. 선생님 수업의 요점이 무엇인지 모르면 답을 모른다.

사실은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성경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만 골라서 설교를 해도 평생 할 수 있다.

이것은 내 경험인데,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이다. 처음 성경을 공부하니까 다 중요하고 다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같이 그런 것 같다. 좋은 말도 많이 하고, 필요한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빠진 것 같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온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교회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너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요즘말로 한다면 정통교회이고, 교리도 완벽하고, 거기다가 행실도 아주 훌륭하다. 여러 가지 면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2:4)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 좀 막막하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처음에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따뜻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쌀렁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회복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서 말한 첫사랑은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좋았다는 것이다.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오붓하게 아주 재미있게 지냈다는 말이다.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은사를 체험하거나 교회가 아니면 죽을 것같이 살았는데, 오래 가다보니까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된다. 한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뜻이다. 희랍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처음 사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의미이다.

다른 것은 모두 완벽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모든 것이 완전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일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다. 교회라고 안 그럴 수 없다.

에베소교회에 주는 벌이 있는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5)는 말이 나온다. 촛대는 교회이다. 금등대도 교회이다.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인데 어떻게 교회를 옮기는 것인가? 지위를 옮기겠다는 의미가 된다. 에베소교회는 제일 우수한 교회였던 모양이다. 교회가 아무리 외형이 우수하고 다른 것에 우수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더 강하게 해석하면 아주 좋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면, 성전에서 촛대를 옮기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깜깜해져버리는 것이다.

참 좋은 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 아주 교회가 잘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에베소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사역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배울 것 다 배우고, 알 것 다 알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수한 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처음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사랑이 아니다. 마지막 축복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2:7)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나무 열매를 버렸다는 것이다.

인류의 문제는 무엇인가? 생명나무를 버린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보자. 교회가 문화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앞서있는 셈이다. 문화적으로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런가? 내 생각으로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가 빠졌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뭔가가 좀 부족해도 되었을 텐데, 생명이 붙어있으면 무엇이 좀 부족해도 살아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버렸으니까 죽은 것이다. 그 이후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동산에서 죽은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어진 것이다. 동산을 나와서 자기 혼자 사는 것이다. 자기의 지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해주었던 축복이 다 없어졌다.

동산을 나가서 한다는 일이 잘한다고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왔다. 누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누가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가? 아무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는데, 가인과 아벨은 최선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갔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이어서 가장 좋은 소출을 가지고 갔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소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교회에서 십일조만 딱 딱해도 우수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가인과 아벨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다.

교인들 중에도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도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또 제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수한 교인이다. 그런 교인을 만나는 목회자는 행운이다. 속 썩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은 천당에 가도 좋은 자리에 앉을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생명나무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편없고 지엽말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불교 철학을 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불교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왔다고 한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대에서 절대적이지는 시대이다. 현대 문명이 모두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두 상대적이다.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한다. 이것이 요즘 아이들의 생각인데, 교육을 그렇게 받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들은 매일 ‘연구해보자. 투표해보자.’고 하는데, 하나님을 연구해보겠다고 알겠는가? 아니면 투표한다고 하나님을 알겠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에서 기독교는 한물갔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절대라고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것이다. 고정불변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불교철학의 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념에 따라서 다 변한다는 것이다. 그럴듯하다.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다. 세계가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보수를 주장하고, 절대적인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만 있고 실재는 없지만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교회가 잘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하는데, 굳이 교회에 안 나와도 되어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니까 다른 것으로 이벤트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따라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른다. 젊은이들이 흥분해서 미쳐있다. 이런 판에 교회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한다고 해도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서양아이들도 싸이와 같은 한국 아이돌을 보려고 밤을 새워서 기다리고 있다. 자기 앞으로 한 번 지나가면 감격하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이벤트를 해서 오게 할 수 있겠는가? 한 때 서울 모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 시간에 그것만 인도하는 목사가 있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모양인데, 요즘에는 그것도 시들해졌다.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은 감격해서 눈물이 펄펄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들은 광대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잡으려는 시대는 지나갔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왔을 때는 서양문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노트 하나라도 완전히 달랐다. 우리나라 노트는 잡지나 폐지로 만든 누런 노트인데, 서양노트는 펄프로 만든 좋은 노트였다. 얼마나 다른가. 지금도 그렇다. 예를 들어 화장지에 표백제를 많이 사용했으니 안 썼는지 해서 문제가 많다. 우리 집은 하얀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 누런 것을 사용한다. 미국에 가보면 화장지도 폐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생한 펄프로 만든 것이다.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그 시대에 신부들이나 선교사들이 생활하던 것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완전히 천사 같이 보였다. 일본의 유명한 성서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처음 만나는 미국은 과연 천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40일 걸려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교파들끼리 경쟁하는 시대여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실망했다.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대한 꿈이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무교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성서 모임은 있지만 교회라는 형태는 갖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도를 반대했다. 그래서 일본의 무교회주의가 유명하다.

이렇게 시대가 변할수록 교회는 달라져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이 세상과 다른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시대가 바뀌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진다고 해서 이것이 맞다는 것이 되겠는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것이 될 말이나? 그렇게 되지 과학적으로 맞다고 될 수가 없다.

교회는 시대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꼭 같은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밥은 먹어야 하고, 숨은 쉬어야 하는 존재이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숨을 쉬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 우리는 숨을 공급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한다. 이것 하나를 버린 것이 전부를 버린 것이 되었다. 그것만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떠나면 모든 것이 변색되고 왜곡된다. 하나님이 축복한 것도 왜곡된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왜곡되었다. 그들은 자기들대로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이 주신 것은 그것대로 따로 있다. 맞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예수를 죽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는가? 7~800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종교지도자들은 더군다나 그랬겠지만 일반대중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겠는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니까 그런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계 지배는 그만두고, 잠잘 곳도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미웠겠는가.

요즘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다. 자기들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조롱을 해도 분수가 있지 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때려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초라한 시골뜨기 와서 그 귀중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밉상이었겠는가? 다른 날 하지 왜 하필 안식일에 하느냐는 것이다.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하면 되는데, 왜 하필 그날 회당에 와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미워도 보통 미운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일반생활에서도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증오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할 때, 보통으로 그렇게 하겠는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려서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완전 악질이라고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아주 선한 사람들이고, 아주 정통인 사람들이다. 그럴수록 더욱 미워했다. 농민들이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한참 따라다녔는데, 상위권에 속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no'였다. 그들은 예수가 사기 치러 왔고 조롱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미친놈이라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결과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다 헛일이다. 예를 들어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해도 똥은 여전히 돼지 똥이고, 살은 여전히 돼지고기이다.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되겠는가? 안 된다.

한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 여러 가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나라도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버리면 헛일이다.

내가 지금 멀쩡해도 숨 하나 끊어지면 죽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3분만 숨을 못 쉬게 하면 죽는다. 숨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다. 지금 숨을 쉬고 사니까 숨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숨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밥은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산다고 하는데, 숨은 3분만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 숨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것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는가? 숨이 없으면 그만이다. 별 것을 다 있다고 하더라도 숨이 없으면 뭐하느냐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는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렘31:33)라는 이 말씀의 성취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뺀다면 아무것도 없다. 다른 것은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도 얼마든지 있다. 좋은 말씀은 다른데도 얼마든지 있다. 서양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논어 맹자 읽어보면 그 안에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지 모른다. 그리고 공자님과 같은 분들도 경지에 이른 분들이다.

예수님만 간음하자 붙들린 여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솔로몬만 그런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다. 공자님도 그랬다고 한다. 시골에서 돌이 싸워서 송사를 하러 왔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것이 아니면 죽겠다 하고 왔다.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은 남대문에 문턱이 없더라고 한다. 시골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문에 문턱이 없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문턱이 없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돌이 우기다가 송사를 하러 온 셈이다. 그런데 보지 않고 우기는 사람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원칙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문은 문턱이 있다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틀리면 내가 죽겠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런데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칠 일이 없다. 자기가 보고 왔기 때문에 아니라 해도 그만이다.

그래서 돌이 왔는데 공자님이 그 돌의 송사를 듣더니 틀렸는데 죽겠다는 놈의 손을 들어주더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분명히 틀린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손을 들어줍니까? 생각해봐라. 그 사람은 죽겠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손을 안 들어주면 죽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다른 것이 없다. 예수님만 그런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 정도는 다 된다. 석가모니에게 가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당장 죽을 것인데, 네 이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없으면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바친다. 성경에 말이 많고 좋은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열매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가 되는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렘31:33)가 된다는 말이다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성취가 안 되었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성육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육신한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다. 예수님이 그렇다. 공자님이 그렇다.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성육신했거나 말거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처음에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돌봐주었지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묶어서 생각을 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신학을 공부하다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데,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데도 필요한 데가 없다.

물론 좋은 분이라고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수용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안 된다.

나를 돌봐주실 때, 예수님이 돌봐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준 것은 확실하고 역력하다. 그렇게 살려면 예수가 나에게 필요 없다. 이번에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도 그렇다고 한다. 자기는 예수가 필요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이 맞는 말이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될 일이 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꼬집어 내주고 살려주고 하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이 구속이다. 나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면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어도 나는 원래 위치를 모른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른다. 떨어진 것도 모르고,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떨어졌다고 해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른다. 사실 아무것도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한다.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별것도 아닌 것을 맨날 죄인 죄인하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지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것이 안 된다. 아무리 옆에서 울고 불고 해도 나는 안 되었다.

내가 그렇게 중한 죄를 졌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누가 다 완전한가? 그렇다고 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필요가 없다. 그분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모르는 분이지만 하여간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늘 하늘만 쳐다보고 오늘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만 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 신앙생활이 그랬다. 하나님이 혜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며칠 가면 시들해진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렇다. 늘 개였다, 흐렸다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설던 때와 지금도 똑같다. 어떤 때는 좋아서 찬양하고, 어떤 때는 원망한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충만하여 좋아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완전히 꼬라박아서 얼굴이 시꺼매지고 찬양이 안 나오고 교회 가려고 하면 죽을 지경이다. 더구나 사람들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돈 있을 때는 사장님 어찌고 하면서 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장로님 소리 듣기도 민망하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장로 이름 가지면 뭐하는가? 회의 가면 할 말이 없다. 돈을 내놓아야 할 말이 있지 돈도 안내 놓

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장로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교회를 못 나간다. 무슨 낯짝으로 있겠는가? 장로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한다고 해놓았는데, 축복은커녕 저주가 왔는데 무슨 낯짝으로 가겠는가? 사람들이 속으로 저 장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정죄한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못 간다.

나도 그런 사람을 보았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부부가 잘 나가다가 망했던 모양이다. 자기 교회 못가고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다시 그 교회로 간다. 장로교회 장로들은 특이하다고 생각한다. 돈이 회복되면 도로 간다. 참 묘하다. 어떻게 교육을 하기에 그렇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돈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고, 없으면 못 오니까 교회가 잘 된다. 우리 교회에 와 보았자 그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헌금을 하나도 못한다. 그런 면으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숫자 좀 채워주다 가버리는 것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했다. 진짜로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너무 다르다. 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것만 안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일이고, 이 일이 예수 안에 와서 완성이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실망이 되어 버렸다.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니까 그것이 말이 되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바란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하나님을 믿고 잘되어야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망한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다. 다 잘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갔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취했다. 이것이 아이러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간 사람을 하나님이 취했다. 완전히 생각이 틀리다.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이 세계를 맛보기 어렵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말씀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에게 그 말이 먹히겠는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의 다 와 가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다 온 사람이 아니겠는가? 유대 70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다. 천주교로 말하면 추기경 같은 사람이다. 천당 근처에 다 온 사람이 아니겠는가? 죽기만 하면 금방 바로 갈 것이고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 말이 아멘이 되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틀어졌으니까 우리 위치를 다시 찾는 것이다. 그것이 구속이다. 죄를 회개한다거나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다 구속이다.

죄가 무슨 죄가 있는가를 나는 몰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내가 위치를 이탈한 것뿐이지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더라. 그런데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말

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 생각해서 안 일이 아니다. 내가 자범죄를 지은 것은 내가 스스로 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아무리 회개해도 돌아갈 데가 없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회개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물론 자기 생활에 유익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회개는 소용이 없다.

차라리 불자들이 하는 회개가 더 낫다. 새벽 염불을 할 때 보면, 승려들이 모여서 참회(회개)를 하는데 구체적인 문구가 있다. 그대로 읽으면서 절을 하면서 한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낫지 예배당에 가서 맨날 중언부언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데서 머물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해서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 머물 것이 아니다. 자기 목숨을 내 놓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에 대해서 100%는 못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가치를 살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증인이라고 생각한다. 공자님도 맹자님도 내 증인이 되라고 한 분은 없다. 석가모니도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 예수님만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

왜냐하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다. 꼭 증인이 필요하다. 왜? 같이 살아본 증인이 필요하다. 제자들처럼 같이 산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산 증인이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부활한 후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이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분과 연합된 것이 그분의 증인이다. 나도 그렇다고 해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죽고 말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증거를 하겠는가?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나도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야 증인이 된다. 거기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 죽었다느니, 이래서 증인이 되겠는가?

나는 요한복음 1장은 처음 말씀한 대로 일생동안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쓴 말이다. 1장에서 모든 말을 다 한 셈이다. 전부를 다 한 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 어떻게 그가 우리의 장막이 되었는가? 내가 지금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면 내가 갈 데가 있다. 그 자리가 인정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진다면, 나도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뼈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뛰어 내리고 뼈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갈 자리가 거기밖에 더 있겠는가? 거기를 버린다면 갈 데가 없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휴학을 했다가 온 사람도 있다. 한 5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온 사람도 있다.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면, 그래도 내가 갈 데가 있으니까 왔다고 한다.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왔다.

나를 받아줄 데가 어디인가? 누가 나를 받아주겠으며,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어디 있는가? 내 성막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성막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성막이 어디 있는가? 그 예수 안에 있다. 뛰어내리지 못한 그 속에 있다. 그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 집이다. 영원한 집이다. 내 영원한 고향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거기는 갈 수 있다. 세상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종교에서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갈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 그것이 성막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 우리 장막이 되었다. 예수는 우리 집이다. 영원히 거해야 할 집이다.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다. 그 안에서 밖에는 나를 찾을 데가 없다.

어디를 가도 나는 판단을 받게 된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잘살았다고 해도 판단 받을 데가 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마7:2) 비판 안 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안할 뿐이지 속으로는 비판이 된다. 정말 속으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왜 저럴까?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안한다고 해도 그 생각이 있는데, 참고 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비판을 하면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이 있지만 비판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있는데 비판을 안했다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가도 100% 내가 숨 쉴 데가 없다. 그 품안에 가지 않고는 내가 100% 숨 쉴 데가 없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엄마한테 달려갈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무슨 잘못을 자기가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엄마한테만 달려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다 해결이 된다. 그런데 엄마한테까지도 갈수가 없다면 뭐가 되겠는가? 갈 데가 없으니까 문제아가 된다. 자기 집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다가도 해가 지면 돌아올 줄을 모른다. 왜냐하면 집에 가야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갈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 갈 데가 있다. 역수 같이 비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치는데, 들어갈 내 집이 없다면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슬픈 일이다. 집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데가 많다. 집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아무데 가서 갈 데가 없으면 얼마나 처량한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을 때, 내가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자리이다. 하지만 내 집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나 생활하신 것이나 행동하신 것이나 어디에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혜택은 입을 수 있지만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나는 이것을 증거 할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영원한 집을 얻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된다.

만일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 가서 내가 쉴 것이며,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뵈옵겠는가? “본래(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고 한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고 알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제일 많이 알겠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분을 보고,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 것이다. 내 영원한 집으로 알기 어렵다.

혜택은 주다가 안주면 그만이다. 원조는 하다가 안하면 그만이다.

지금 트*프와 김*은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간에 배신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핵 협상해서 다 처리하겠다. 대신 단계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된다고 하는가? 핵이 10개 있는데 9개는 처리가 되었다. 9개까지 내놓을 때 경제적인 보상을 다 해주어 살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미국이 싸울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또 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다. 줄다리기가 그것이다. 지금 며칠 사이에 결정이 된다는데, 과연 김*은이 백지위임을 내놓고 일본처럼 무조건 항복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김*일 때인가 하다 말았다. 미국도 이제는 안 속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또 미국을 못 믿는 것이다. 다 내놓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서로 못 믿으니까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완전히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 책임을 안 질래야 안 질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혜택을 주다가 말면 그만이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참 잘 나가게 해주셨다.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 안 되는 수가 많다. 계속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다. 100% 원조를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에 가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안 되는가?’ 해서 회개를 해 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불안정하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왔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먹었어도 불안하다. 앞으로 10년이나 남았는데, 10년 동안 안 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저께 주었으니까 내일도 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 안 주어도 할 수 없다. 혜택이라는 것이 그렇다.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이 혜택을 줄 테니까 자기들을 믿으라고 한다. 그런데 피수혜국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미국도 안심하고 원조해 줄 나라가 없고, 받는 나라도 받으면서 항상 불안하다.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항복해 버리니까 무조건 원조를 해주었다.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무조건 항복해야 무조건 지원해 준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는 세계가 열렸다. 예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운명에 있는 것, 이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이 개방되었다. 우리가 저기서 떨어졌구나. 저기서 떨어졌구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물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라고 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두려운 것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두렵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 거기는 이판사판 두려울 것이 없다. 한 운명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그분 안에서 가는 것이니까 내가 안 가도 된다. 그분이 가면 내가 갈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 안에 항상 살고 있다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죄인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수속을 밟아야 된다. 제단에서 양을 바쳐야 되고, 성소를 지나야 되고, 성소의 봉사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수속이 상당히 어려운 수속이다. 쉬운 수속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수속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이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10:20)고 한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고 한다. 해마다 드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 열렸다. 하나님이 다 열어 주셨다고 해도 우리는 못 갔다. 왜 못 갔던가? 아무리 열어 놓았다고 해도 두렵기 때문에 못 갔던 것이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제는 닫을 필요가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겁이 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나에게 흠이 없을 수 없다. 다 흠이 있다. 그런데 흠이 있어도 좋다. 뼈다귀만 있어도 좋다는 것이다. 뼈다귀만 남아도 부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짐이 없다. 내가 무슨 짐을 질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그 안에 내가 있는 데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고, 흥하면 같이 흥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만 흥하겠는가? 예수님만 흥하겠는가?

‘함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함께 죽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 바울이 쓰는 말 중에 ‘함께’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다.

우리가 함께 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항상 ‘함께’이다. 내가 기도할 때만 ‘함께’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만 ‘함께’가 아니다. 항상 ‘함께’이다. 그 자리가 지금 개방되었다. 만민에게 개방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이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이 없이 만들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도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는가? 아주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속해서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속해서 자기와 연합해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노선이다.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이다. 이것을 지금 사탄이 망쳐 놓은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 이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는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이상 방해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사탄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마귀가 천사로 변한다. 마태복음을 보라.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고 한다. 말로는 그럴겠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마귀가 수종 드는 천사로 바뀌어진다는 말이다. 마귀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어서 계속 쫓아다니면 되겠는가?

임금이 제대로 제 자리에 있으면 간신이 없어진다. 그런데 임금이 제 자리에 있지 못하면 간신이 생기는 것이다. 충신이 되면 오히려 못 살고 괴롭기 때문이다. 간신이 더 편하다. 간신이 많이 생긴 나라는 임금이 잘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자기 자리를 못 지켰다는 말이다.

지금 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걸핏 하면 사람을 죽여 버린다고 한다. 즉석에서 처리해 버리니까 꼼짝을 못한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이다. 언제 망할지라도 우선은 하여간 잘한 것이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돌아와 비행장에서 그 대표자를 죽여 버렸다고 한다. 자기 잘못이라고 뒤집어쓰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즉석에서 처리했다는 말이 있다. 유튜브에 그런 것이 나온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른다.

아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공자님 같은 임금이 되어서 잘하든가 해야 한다. 그런데 공자님은 임금이 될 수 없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공자님 같은 임금은 없다. 공자님이 나라를 바르게 해보려고 그때 7국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한다. 왕들을 만나서 국사를 의논하고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돌아와 제자 육성의 길로 간 것이다. 공자님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빌라도를 만나는 것을 보라. 빌라도가 회개해서 오겠는가? 안 된다. 세상에는 공자님과 같은 왕이 있을 수 없고, 맹자님과 같은 왕이 있을 수 없다. 대학에 나오는 대로 할 임금이 없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매 한가지이다.

사람이 제 자리에 있으면 만유가 다 굴복하도록 되어 있고, 제 자리를 떠나면 만유가 다 역적이다. 다 나를 괴롭게 한다. 사람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는 금방 달라진다. 죽으면 금방 파리가 달라 든다. 그래서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서 다 알을 까버리고 만다. 그래서 며칠 후에는 사람이 구더기 집이 되어 버린다.

어딜 가다가 길에서 그런 것을 보았다. 개가 한 마리 죽었다. 그런데 꾸물꾸물 했다. 그 속은 구

더기로 짊어 버렸다.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속은 구더기가 짊어졌다. 파리가 어느새 와서 거기에 알을 까서 그렇게 되어 버렸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그렇게 다르다. 산소가 사람이 살았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죽으면 사람을 썩게 만들어 버린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없으면 만유가 다 적이다.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산소는 산소대로 유용하고 다 필요한데, 사람의 자리를 떠나면 금새 적이 되고 만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구속한 것이라야 예수와 연합이 된다. 예수와 연합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에게는 간단하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고, 사람은 그 문제에 휘말렸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는 것이다. 시대가 바뀔수록 점점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로 가버린다. 그래서 불교 말이 옳게 들린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소위 문화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갈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 시작이 있다고 생각해도 불안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끝을 모르니까 불안할 것이 아닌가? 이것저것 다 폐해 버리고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우리는 만난 인연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하다. 불교 말이 참 편하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만난 것은 다 인연이다.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만나서 인연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물결이 어디 있었는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는 물결이 없다는 것이다. 바닷물을 보면 물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우리 동네는 그렇게 생겼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다 보인다. 그런데 바람이 거꾸로 불면 파도가 일어난다. 바람과 물결이 거꾸로 일 때는 파도가 일어난다. 그런데 물과 바람이 같이 가면 조용하다. 파도가 안 일어난다. 똑 같다. 바람과 물의 인연이다. 그러면 풍랑이 된다는 것이다. 불교 말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다 맞다. 그런데 목표가 없고 갈 곳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인데 그것을 버렸다. 생명나무를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이 인간의 문제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누가 연결하는가? 예수 안에서 연결된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다리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다리가 되는 것이다. 중보자가 된다. 예수가 인류의 중보자이듯이 우리는 누구의 중보자가 된다.

우리의 지위는 크기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크기이고, 위치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지위에 있다. 우리를 데리고 보좌우편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보좌우편으로 갈 때는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다.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자기도 버리고 갈 수가 없다. 포함된 것을 어떻게 버리고 가는가?

나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얼마 못 살고 죽겠지만 내 영원한 집이 있구나. 갈 집이 있구나. 현실적으로도 갈 집이 있구나. 온 세상이 나를 버릴 지라도 나는 갈 집이 있구나. 나를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칭찬만 하겠는가? 막 좋다고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나는 교회 40년 역사에서 좀 미안한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나와 끝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 항상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들 밖에 없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알고 보면 언제나 혼자이다. 내가 만일 이렇게 절대적으로 집이 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나는 어느 때 가서 딱 떨어질지 모른다. 주가가 떨어지듯이 딱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거할 집은 예수밖에 없다. 갈 곳이 거기 밖에 없다. 다른 데 가봤자 어느 날 찬밥 신세가 될지 모른다.

여기는 목사님들이 모였다. 지난번에 금목사님이 초대해서 목사들이 많이 모였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 생생하고 젊은데, 하는 이야기가 모두 정년퇴임을 이야기했다. 저 나이에 퇴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화제였다. 퇴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퇴임하면 다 찬 밥 신세이다. 아무데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노인당에 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돌아갈 데가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도 돌아갈 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 안에 밖에는 없다. 거기밖에는 없다. 어떤 경우도 나를 사람으로만 받아주는, 인간으로만 받아주는 그 자리는 거기밖에 없다.

여러분도 영원한 집을 다 한 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집 없는 분은 집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집이 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은 집이 둘이라고 했다. 무슨 집이 둘이냐고 하니 자기와 자기 할머니의 똥집이 두 개 있다고 했다.

그보다 얼마나 우리 집이 좋은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내가 갈수 있는 집이다. 내가 갈수 있는 집이다. 내가 거기 있어야 할 데인데 내 대신 있는 것이다. 내 대신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다. 20년을 테이프를 들어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자꾸 분명해진다. 희한하다.

나는 이제 안 것 같은데, 20년 전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그 테이프에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습다. 이것이 이상하다. 나는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십년 전에 30년 전에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 중에는 30년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저 이야기는 30년 전에 한 이야기야, 25년 전에 한 이야기라

고 한다.

이런 친구들도 대단히 답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점심 잡수실 때 어저께 먹은 것을 오늘 또 먹는다. 그렇다고 어제 먹던 밥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굶어죽는 것이다.

항상 새 맛이어야 한다. 이 생명의 세계가 참 신기하다.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하다. 진짜 대가들은 글을 안 쓸 것 같다. 써놓으면 옛날 것이 된다. 그때는 새것인데 나중에 와보면 옛날 것이니까 안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글을 썼다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닌가 모르겠다. 땅바닥에다 뭐라고 썼겠는가?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모른다. 하여간 글씨를 썼다는데 땅바닥에 썼으니까 도로 지워졌을 것이 아니겠는가? 모래 위에 글씨를 써놓은 것처럼 항상 현재인 것 같다.

생명은 항상 현재 뿐이다. 어제와 없고 내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도 어떤 학생이 와서 질문을 한다. 교회 온지 얼마 안 되었고,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너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른다고 했다. 나도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학생이 깜짝 놀랐다. 실제로 모른다.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는가? 나한테 베풀어 준 그것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본래(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길래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좋다고 하고 갔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올 것이다. 말을 듣는 것을 보니까 물어보나마나 올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 학생은 틀림 없이 올 것이다. 여러분은 잘못 써먹으면 안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끝이 없다.

감사합니다.